

	<h1>보 도 참 고 자 료</h1> <h2>2.24(수) 9:30부터 보도 가능</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	--	---

작성부서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임자	안창국 과장	담당자	이진영 사무관(2156-9892)	
배포일	2016.2.24(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4매

제 목 : 금융위원장,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4일(수)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3.14일 출시를 앞두고,
-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6.2.24(수) 09:30 ~ 10:3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은행·증권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장·금융투자협회장, 은행장*·증권사 사장** 각 5인
* KEB하나, KB, 우리, 신한, 농협 ** 대우, 미래에셋, 한투, 현대, 삼성
- (주요 논의사항)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한 당부,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SA는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 은행의 ISA에 대한 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등 최근 이루어진 조치는 고객의 편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 이제 각 금융회사에서 ISA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하고, 다음 사항을 특히 당부하였음

- ① ISA의 성공여부는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인 만큼, 유치고객수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 등을 통해 고객을 위해 제대로 운영할 필요
 -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②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람
 - 감독당국도 일임업 등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처리기일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
 - ③ ISA는 대다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에 각별히 주의
 - 금융위·금감원도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
 - 특히,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
 - ④ ISA 출시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으며,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임
 -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상품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의 수익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
- ☐ 참석자들은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 현재 시스템, 모델 포트폴리오 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출시 예정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언

- 국민들이 ISA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권유와 운영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 한편, 금융위원장은 금일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❶ 은행들은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선스**가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줄 것을 건의
 - 은행에 ISA 일임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마무리(3월초) 되는대로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
- ❷ ISA 출시일에 맞추어 은행 ISA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인력 자격 취득시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
 -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❸ **신탁형 ISA**에서 편입대상을 위험도가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기존 편입대상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필기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❹ **ISA의 가입대상,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 여부는 **ISA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전문

※ 실제 발언 내용은 본 원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임

ISA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여러 금융업권의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로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종합자산관리계좌임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더욱 필요해 진 때에,

국민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임

그동안 정부는 ISA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업권 등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왔음

오직 **국민의 편**에서 금융수요자인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 1의 기준이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함

은행에 ISA 업무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여
업권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국민의 편의와 혜택을 높여주기 위한
금융개혁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임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이전투구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항을 **원만히 합의**해 주셔서
양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은행장님**과 **증권사 사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림

이제는 원칙과 기준이 정해진 만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1) ISA의 성공여부는 결국
높은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임

이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

수익률은 적당히 맞추고,
유치 고객수나 점유율 같은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임

금융당국은 철저히 **수익률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ISA 수익률에 대한 비교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어느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시장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잘 못하는 금융회사에서 잘 하는 금융회사로
손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

과거 금융업계는 신탁과 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특정 상품에 편중되게 투자하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음

ISA는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고객의 편에서 제대로 운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함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실있는 상품 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등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각 사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별로 다양하고 최선의 상품을 설계하는 등
ISA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2) 두 번째로, 출시 예정일에 맞추어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3.14일에 출시한다고 해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1인 1계좌라 선점 효과가 있겠지만,
계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이 최고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임

은행장, 증권사 사장 등 **CEO께서 직접**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임업 등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 **절차적인 면에서는**
감독당국이 처리 기일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지원을 다해 가겠음

(3) 무엇보다도 강조드릴 사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ISA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각 임직원이 **ISA 제도를 잘 이해하고**
관련법령과 모범규준에서 정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여**
투자권유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독당국도 ISA에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ISA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특히,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해 나갈 것임

(4) 이제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ISA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임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나,

이는 제도를 어느 정도 시행해 본 후에 판단할 문제로,
ISA 출시 전 더 이상의 제도 변경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ISA 상품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혼란없이
고객의 수익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ISA 관련 최근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자료

① ISA에 대한 자사 예·적금 편입 제한의 필요성

- 은행 신탁에서 자사 예·적금의 편입을 제한한 것은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기준임
 - 원래 신탁업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 재산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왔고, 따라서 자행 예·적금의 신탁재산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5년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자행 고객들에게 좋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 예·적금을 편입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요구를 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에 자사 예·적금 편입을 허용한 바 있음
 - 퇴직연금에 자사 예·적금을 편입 허용 이후 실제 운용과정에서 자사 예·적금 편입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은행 퇴직연금의 예금 편입비중이 93.2%”에 이르는 등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운용과 이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언론 등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퇴직연금의 자사 예·적금 편입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5.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게 되어, 현재 퇴직연금신탁은 자사 예·적금 편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자사예금 편입 허용 비율(%) : (05) 100 (11) 70 ('13.4) 50 ('15.1) 30 ('15.7) 0

- 최근 은행들이 ISA 시행을 앞두고 퇴직연금 도입 당시와 동일한 이유로 자사 예·적금 편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자사 고객에게 가장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 은행이 ISA를 자행 예·적금 판매 실적을 올리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 과거와 같은 운용방식으로 ISA를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고객에게 최고 금리를 주는 경우 자행 예·적금을 편입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은행이 매 고객마다 가입시 금리가 다른 금융기관 예·적금 금리에 비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추후 입증에 따른 부담도 더 커질 것임
- 한편, 신탁에 예·적금 자체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은 자행 ISA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ISA를 취급하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이 자행 예·적금의 ISA 계좌 편입 금지원칙을 유지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탁·일임에서의 자사예금 편입을 제한하면서, 자사발행 증권(ELS, ETN 등) 편입은 허용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신탁·일임재산과 고유재산과의 거래는 금지되나, 자사발행 증권(ELS, ETN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임·신탁재산에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음
- 허용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자사발행증권(ELS, ETN 등)의 경우 예·적금과는 달리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이루어져 모든 거래자에게 발행 조건과 가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거래조건 변경 등이 방지되기 때문에 자사발행증권의 편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 다만, 일임·신탁재산에서 자사발행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③ 신탁형 ISA의 온라인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

- 그간 신탁과 투자일임은 1:1 맞춤형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지 않아 왔음
 - 이는 분산투자 등 투자자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계약인 신탁과 일임의 본질에 맞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
- 그러나, 일임형 ISA의 경우 분산 투자 의무화, 감독당국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및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 온라인 계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
- 반면, 신탁형 ISA의 경우 일임형 ISA와 달리 투자자 개인별 맞춤형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 일임형 ISA와 유사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은 만큼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기 곤란

④ 제도 시행 1개월 전에 은행에 일임형 ISA를 허용해 주어 은행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당초 정부는 신탁형 ISA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2015.12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탁과 유사한 성격의 계좌에 대해서도 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15.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후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를 감안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탁의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된 일임형 ISA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특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5.12.31일)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16.2.2일 국무회의를 통과('16.2.5일 공포)
-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금년 1월중 해당 업권의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① ISA 가입시 국민의 편의성 증진, ② 업권간 공정 경쟁 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일 시행령 공포 직후 은행에 일임형 ISA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구정 직후인 2.15일에 발표
- 은행에 대한 일임형 ISA 허용 발표 후 ISA 준비 T/F를 통해 모범규준 마련과 함께 은행의 일임형 ISA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는 관련 T/F 구성, 사전 접수 허용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만큼, 은행들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받은 후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일임형 ISA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

⑤ ISA에 대한 과도한 경품 제공 등 과열 우려와 ISA 관련 불완전 판매 문제 대응방안

- 1인 1계좌인 IS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
 - ISA는 여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설명없이 묻지마 가입을 유도하거나, 세부 상품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가의 경품을 내세워 사전 예약부터 접수하는 등 과열 문제가 일부 제기
- 금융위·금감원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
 -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A의 가입·운영 등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모범규준을 마련('15.2.15)
 - ISA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금융위원장 주재 ISA 준비 점검회의(2.24일), 금감원 주관 각 은행·증권사의 ISA 담당부서 책임자 설명회(2월중 예정) 등을 통해 직원 교육 철저, 과열경쟁에 대한 자정노력 요청, 투자자 성향분석 내실화 등 당부사항을 전달
 -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 ISA 판매·투자권유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
 - 특히, 출시 이후에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 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높게 시행할 예정